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천국일꾼

고등부 충동원전도일 5월 21일 제2교육관 4층에서

고등부는 5월 21일 제2교육관 4층에서 충동원 전도 행사를 갖는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집회장소를 제2교육관으로 바꾸어 매주일 집회는 9시 30부터 4층에서, 분반공부는 11시부터 2,3층에서, 그리고 학생회 및 돌로스 활동은 12시부터 2,3층에서 가질 예정이다. 고등부는 본교회 등록 교인 자녀들 중 고등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4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방활동을 실시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을 권면키로 하였다.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야 마땅한 학부모들이 자녀 개인의 고집이나 공부에 대한 핑계 등으로 자녀의 소중한 신앙훈련과 성장을 소홀히 하는일이 결코없도록 모든 성도들은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하였다.

제1교육위원회 교사특강

제1교육위원회는 산하 9개 부서들을 3개 그룹으로 묶어 5월 21일과 6월 18일 양일에 걸쳐 제1차 교사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특강은 9,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제1차 특강 주제는 '교사의 소명'이며 강사는 이승수 목사, 정갑신 목사, 이승학 목사 등이다. 강의 장소 및 시간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유치	유·초·소	중·1·2·3	주반
5월21일	이승학목사	정갑신목사	이승수목사	영아초등,소1
6월18일	정갑신목사	이승수목사	이승학목사	유아,소년,중2
장 소	유아부실	교육관 6층	교육관 7층	
시 간	12사·12사50분	12사·12사50분	11사30분 12사30분	

장로 11인 정직

계속되는 혼란 없도록 단호한 조치 진정한 회개와 근신이 없이는 제명 및 출교까지 불가키로 결의

지난 10월에 열린 5월 정기당회는 지난 3월 22일 임시당회와 4월 정기당회를 통해 근신시킨 12인의 장로 중 최성현 장로를 제외한 11인의 장로(윤성식,마성락,김자생,유기전,송동운,정하우,박승준,송기훈,강운원,손경수,이인상)를 정직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교회헌법 권징조제 제5장 34조는 당회가 정하는 제벌을 권제, 간제, 징계, 면제, 수산정제, 제명, 출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직은 장로직을 정지하여 직책뿐 아니라 장로직분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것을 말한다. 당회는 이들 11인에 대한 정직과 더불어 수산정제도 계속 적용키로 하였다. 당회가 금번에 이토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된 것은 이들이 당회의 근신결의 이후에도 당회장 및 당회 서기 등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주장하고(9인의 장로), 또한 교회안에 진정한 회개를 토해기 보다는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회는 비방과 불신을 교회안에서 근절시키는 데에 의지를 모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지를 통해, 향후 이들이 진정한 회개와 근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적인 비방과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제명 및 출교까지자기도 불가키로 하였다. 한편, 당회는 최성현 장로의 진심어린 참회와 회개를 받기로 하고, 금번 처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랑부 교사 재교육

사랑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작하여 6월 4일까지 8주에 걸쳐 교사재교육을 하고 있다. 김동석 지도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금번 재교육을 통해 복지관 지하 1층으로 옮긴 사랑부가 더욱 알차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1,2,3 교육위원회 국내외 교회탐방

1,2,3교육위원회는 5월 14일과 21일 두주에 걸쳐 국내교회들을 탐방하고, 6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미국교회를 탐방하므로 국내외 교회학교들의 교육 및 행정시설의 교육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는충현교회가 일찍이 한국교회에 천국일꾼양성의 기치를 세운 교회로서 특히, 복음적인 교육,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 갈 것인지를 연구하여 실천하기 위함이다.

세계선교

선교기도회

일시: 5월 18일(목) 저녁 6시30분~9시30분
장소: 만나홀 및 메추라기홀
(6시30분-만나홀, 7시30분-메추라기홀)
대상: 선교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LMTC수강생, 선교관심자

단기선교참가자 모임

일시: 5월 25일(목) 오후6시
장소: 만나홀 및 메다니홀
대상: 98년도 이후의 단기선교 참가자 전원

선교지 탐방

선교위원회는 5월 말 경, 우리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 및 곳에 탐방단을 보내어 선교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탐방지는 수단, 르완다, 우간다 등이다.

외국인 선교부 학습세례식

외선부는 소속 외국인들에게 학습 및 세례를 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우리교회 외선부를 통하여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중 출석이 양호하고 기초 신앙을 잘 갖춘 이들에게 바른 신앙교배를 가르치고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 세례를 주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며, 향후 이들이 본국에 들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학습문답은 국제교구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세례식은 교회의 세례식 관례에 준하여 본당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2000년 의료선교 대행진 6월 4일(주일) 오전10시~오후4시

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는 충현 의료인들의 섬김을 통해 외선부에 출석하는 지체들 및 그들의 동료들을 초청하여 진료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실천을 가르치고 견도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문주자당(우천시에는 선교관 4층)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등이며 진료대상자들은 국내 외국인 선교부 출석자이다.

민족 복음화

경찰전도회 영성훈련 5월 20일

경찰전도회는 5월 20일 포천 광덕산에서 영성훈련을 가지기로 하였다. 강사는 지도 정형성 목사이다.

이웃사랑

결식학생 지원

봉사위원회는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중등부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12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점심식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찬양

호산나 찬양대 5월 18일 성가합창제 참가

호산나 찬양대는 한국 교회음악 협회가 주최하는 성가합창제에 참석한다. 5월 18일(목) 저녁 7시에 영락교회 메다니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성가합창제를 통해서 호산나 찬양대는 예수안에서의 승리 및 참 기쁜 소식 등 2곡을 부를 예정이다.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아버지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요 19:27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딤후 8:5-8

1교구 남·녀 전도회 연합모임

일시: 2월24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충현교회 본당
(금요일영양회)
대상: 1교구 남·녀 전도회

Community of resurrection

(Luke 24:48)

"It is a community who comes together in Christ to glorify God and care for each other by edifying, encouraging, and equipping one another for His service through His power"

In today's message, Jesus proclaims,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v. 48). You refers to the church community, and these things refer to His death, resurrection, and their meaning. At present, does Choong Hyun really testify to these things? Are we faithful witnesses to Jesus' cross of redemption and His glory of resurrection? Our outward missionary work is slowly growing, but what about our inward fellowship? Are we limiting our inner testimony to just communion service, where we share in the bread and wine and talk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Do we only remember these things at that time? Listen carefully my brothers and sisters, real witness is the community of resurrection. It is a community who comes together in Christ to glorify God and care for each other by edifying, encouraging, and equipping one another for His service through His power.

The whole concept of resurrection gets Christians excited. To know that Jesus actually died for your sins, conquered death, gives His Holy Spirit to believers, and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until such time as God chooses to return Him to consummate all things in Him, is spectacular! When believers die of Christ returns, they get to see Jesus face to face. They get resurrected bodies. They get to spend eternity in His presence. They get to live in a place that has no sin! If the thought of these things don't fill you with overwhelming joy, you're in trouble. If these things don't make you want to jump up and down and shout for glory, you're not on the ship that's sailing upward toward heave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provide the way, the only way, to salvation. Those who believe that He is their Lord and Savior receive His Spirit and a new nature when they accept Him; the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when they repent; and they recei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t's a miraculous blessing that no one can earn and no one deserves. Salvation is a free gift from God. It changes and empowers us to love God and each other. Just look at the early church. They were a beautiful community of resurrection. Although their lifestyles and situation were very different, they still loved and cared for each other. They became born again Christians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ey became one under the cross. Both the wise and imprudent, the rich and poor, became a community of resurrection. And this little community changed the whole world!

Choong Hyun has inherited these things from the early church. Like them, we too need the power of witness, the unity that comes from being under the cross, and the miracles from heaven. The world is

dark and sinful. The early church heard the real message of salvation and experienced its blessings. They saw themselves become one. Three thousand plus souls came to the Lord after Pentecost and began caring and loving each other. They shared all things in common. They sold their property and possessions and evenly distributed their material things to all who had need.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firsthand. I'm asking you, right now, is Choong Hyun really hearing this message? Are we participating in this kind of love? Is our church really unified under the cross? We need to closely look at the early church because we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 community of resurrection.

The community of resurrection doesn't belong to one person, or a couple of special people. It is the gathering of many different believers. Of course, this group will have varying opinions, not everyone will think a like. This is a good thing. Differing viewpoints enrich the church. They also cause disagreements and sometimes arguments. However, believers understand that Jesus died for them, loves them, and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God and between God and His children. They forgive each other. They truly love each other. They pray for each other under the cross of redemption. They believe in the Word of God. Actually, the Bible guides the community of faith. Amen!

To believers, the church is filled with Christian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oreover, believers view it as a community of faith. Do you see it this way? If so, do you really practice this? Choong Hyun doesn't belong to any person. It may be your church home but you don't own it. It's not yours to own! This church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you possess. Choong Hyun cannot be one when members put their own things above the church. In other words, if you think your own personal possession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ommunity of resurrection, then unity within the church is impossible. Why? Jesus did not think of Himself as more important than the church. He gave everything for the church. He died, so that the church could exist and live.

Finically, some people think that this church is about giving to others to help them change. Sounds good but this church cannot change people; it can't make revelation on this earth. Whoever makes revelations on this earth think their own possession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hurch. Individuals sometimes get excited about their own theories regarding things, like technology or even spirituality.

When people want to show their own thing, it becomes more important than others. The church can't change the world when it operates like this. It just becomes successful. Jesus' community is a community of love, sacrifice, and grace! There is no selfishness. And there is only change when believers follow Christ, not the world.

The world's culture always shows the church her problems. It explains people's different attributes. Culture is not inherited; it is learned. It is learned through the deposit of knowledge, experience, beliefs, values, attitudes, meanings, religion, etc. acquired by a group of people in the course of generations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striving. The world's culture always supports your way. But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sacrifice, acceptance, and forgiveness. It has a different culture. A culture that only supports the giving away of your life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world's culture gives you false pride.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the one in charge. The church's culture opens your eyes to truth and makes you see that only God rules. It makes you see the necessity for sharing and loving each other. Listen closely my friends, the church needs resurrection, not compromise. It need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ur church needs a revival of spiritual blessings. We need the strength of grace and the holiness of Christ to rejoice.

In the church, people have differing spiritual gifts. Strong people care for weak people. People of assurance assist people with doubt. Peaceful people handle angry people. Healthy people help sick people. Everyone has a place to serve! I pray that all members of this church move toward the community of love. Jesus said,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Look at verse 47. He also proclaimed,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My beloved congregation, how long will you continue to let selfishness, material blessings, and success invade our church? Choong Hyun cannot function as the body of Christ if we are not a community of resurrection. Let's hear the voice of Jesus. He's not selfish. He gave His life. He transformed our natures from sinful to holy. He changed our relationship from Satan to Himself. He asks us to be His witnesses. Oh, how amazing is the community of resurrection. When we deny ourselves, the Holy Spirit begins to work. When the Holy Spirit begins to work, people change. When people change, the community of resurrection flowers. Amen. 



김성곤 목사

부활의 공동체

(눅24: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신실한 증인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떠나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신실한 증인입니까? 표면상의 선교사역은 서서히 자라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후사라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증인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혼례와 격려, 그리고 주님의 권세로 서로를 세우는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은 성도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편에 있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장엄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깨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로운 곳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만일애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여누를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는 배 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다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부활공동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약속을 얻습니다. 이는 자결되는 자들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 받게 되는 기적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의 공동체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변화된 이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의 공동체였습니까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들어야 할 메시지

모든 이들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 아래서 하나되는 은총과 관료로부터 입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역사 이후 삼십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와 서로를 돌보며 사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모든 소유를 필요한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현교회회는 진실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진정 하나되었습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활의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하나된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일치와 논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관점들은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외없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함께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는 믿음의 친구들과 형제 자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충현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물을 이 교회에 쌓아두고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애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물들이 부활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으므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교회는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것이건 영성에 대한 것이건 나쁜 대로 가지고 있는 이론들에 대하여 흥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지 외향성 성공적으로 보일 뿐,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회개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이기심이 끼여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문화 교회문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설명합니다. 문화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 신념과 가치, 태도와 의미 등의 축적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획득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항상 우리들이

가진 길을 가르쳐 주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교회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생을 가르칩니다. 용납과 용서를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릇된 자만심을 가르치지만, 교회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도록 가르치는 문화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책임자라고 하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유일할 통치자이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고 사랑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는 정치적인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관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축복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에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봅니다.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을 돕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난 자를 달래줍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병자들을 도와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질 좋은 곳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을 이끄셔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나’.

그 날을 향하여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기심과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돕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죄에서 거룩으로 변형시키셨습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부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공동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모인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니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면 부활의 공동체는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즈벡을 다녀와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김 석 진 (우즈벡팀 팀원)



경기가 삼엄하고 위험한 그곳에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우리는 기도한 후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떠나 남한간 일대를 답사하였고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사마르칸트에서 체류하는 동안 속소로 머물렀던 아잠씨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다. 세 딸(큰 딸이 3수험생)이 있어 우리와 아주 친숙해져서 우리가 가르쳐준 찬송을 함께 불렀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의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법을 배우도록 허용해 주었다. 마침내 세 딸과 그 모친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앞으로 우리가 없어도 계속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잠씨와 그 친구 코비씨는 우리들에게 친구로서 우정을 지속하며 우리가 헤이즐 데 선물한 우즈벡어 성경을 계속 읽기로 하였다. 외신부에 출석하는 우즈벡 형제들의 가정들을 심방하며 특별한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심성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계속하여 사귀면서 좀더 잘 알기 원한다는 것이었다. 사역을 마칠 즈음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회개하 추수하게 되었다”(요 4:35)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절로 생각났다. 이곳은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 곳인가!

우 리나라는 1991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승인,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현재 대우를 비롯한 수십개의 기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99%가 무슬림이지만 코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가 정치의 세력화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인접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여러 위험이 수반되며 교회동록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지하교회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출발시에는 비교적 온건한 주요도시의 정담을 계획했었다. 긴급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이슬람 극렬분자들이 반정부 활동하는 동부 신악시대 남한간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우즈벡 친구들은

가정들을 심방하며 특별한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심성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계속하여 사귀면서 좀더 잘 알기 원한다는 것이었다. 사역을 마칠 즈음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회개하 추수하게 되었다”(요 4:35)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절로 생각났다. 이곳은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 곳인가!

외신부 우즈베키스탄이 시작된 것이 불과 6개월인데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임을 감지할 수 있었고 급변 정담사역을 통해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에서 자원으로 보내 줄 것을 잘 고쳐 받아 심자가 정담들로 양육하는 외국인선교부 사역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임임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경건이 받아 보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간전적 부모형제 정돈교회 교향명을 떠나 얼마나 애로가 많았나. 너의 기도와 열려의 덕분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열려 없이 쉬고있는 잘 있다. 원수인들과 기쁨의 교향명과 영적으로 싸우며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논하기를 비탄다. 교회를 세우느라 많은 애를 쓰더니나, 교회를 새로 짓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심이었구나. 회중을 교회현실에서 나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어려번 교회를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나? 이제의 영적인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는 마마교회와 되기를 염하는 기도한다. 여러 가지 감동하여 하는 일들과 주일학교도 맡아서 하는 것이 무급했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하였다. 그 나락 말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리라.

얼마는 안일하고 병으로부터 보호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생명이더도 다 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하는 애라는 실정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새백마다 기도하고 있었다. 경건이, 생활할수록 감사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품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가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하게 염하는 줄이다. 경건이 누구도 고맙고 대견스럽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구나. 얼마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 기쁘시고 사랑하셨나! 너의 앞길을 활하게 열어주시고 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염하는 즐거움과 기도는 마음으로 지낸다.

안식일 천교사님, 사모님, 천교사님의 자식들, 경건이, 수장이 그리고 청은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끝없이 있기를 빌며,

2000. 5. 14. 서울에서 얼마(김준서) 전사자.

*오랑진기 더 형신도신은 현재 수리대방사 사역 중입니다.

“서울의 교회에서 지원금을 보냈다”

-충현성도들의 사랑, 몽골신문에 게재-

데일리뉴스 신문소개 : 몽골의 우프링 소년(데일리 뉴스)이 공식명칭이며, 정부발행신문이다. 바틀가는 이 신문사의 사진기자로 우리 교회 외국인선교부 몽골팀 헬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오닐출의 남편이기도 한데 이번 성경전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신문은 몽골의 모든 코 이하 지방마다 다 배포되는 매우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신문인데 4월 11일자 84호 신문에 우리 교회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 다니는 몽골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신생아들, 많은 사람들이 몽골의 재해를 격정해 구원하는 사랑가 4월 2일 이 돈을 전달했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구해 주며 몸이 아를 때 여러 가지로 도와 주는 좋은 교회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북삼성병원 전도를 다녀와서

작년 7월 첫 화요일부터 강북 삼성병원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에스더 형님들이 5월부터 6월까지, 루디아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달씩 전도 하자고 제의가 되어왔습니다. “전도하기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던 중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목으로 개신 감리주 목사님의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저에게서 부탁하신 마지마지 사명이며,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감사를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므로 화요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기뻐야 될 마음이 무가운지, 그러기를 수개월 지냈습니다. 이제의 남한의 간절히 기도 때 힘을 얻고 평개하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애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실 때를 기다리 열심히 해야지 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원목들이 들어가면 언제나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에게 기쁨으로 인사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신원(중·대·중·대)로 찾습니다. 병실 본 앞에서 서서 “하나님 오늘도 예쁜사람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한 입술을 성령께서 주시길 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병실에 들어서며 미소전 얼굴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러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그들도 마음문을 엽니다.

손도 만져주고 호트르된 배개도 다시 정리하고 주도 힘들어 하는 환자 어깨와 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커버도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주고 뉘터리도 들어주고 예수님도 자들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방학한 자들에게는 권면하며 기도하고 힘든 환자 손을 잡고 눈물 뿌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따라 만나 전하고 돌아오는 발견은 가뭄고 행복합니다. 12교구 에스더 루디아! 자라! 전도회의 작은 인원이 교회의 투신, 전도지, 주간충현, 충현만나를 들고 황금아침인 병실을 찾아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힘있게 계속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2000년 5월 9일 한애연 집사

임제 생각하는 글

그 수건

더그 맥클래스



아직도 물기에 젖어 열 한 사람의 발에 나온 더러운 때가 묻은 채, 저 구석 대야와 나란히 수건 하나가 걸려 있다. 예전처럼.

그러나 이 밤은 다르다. 그 수건은 계집종이 걸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이 손수 하신 일

이다.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 종의 일을 한 것일까.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런데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잠시동안 열한 쌍의 눈동자가 그 수건과 대야를 응시한다. 생각에 잠긴 채. 오늘날 내내 그 수건은 무거운 짐이 되어 거기에 걸려 있을 것이다.

잠깐! 지금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뭐라고? 서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이 적은 무리가 선생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설령 자 청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선생을 한 번 바라한들 무슨 달라질 일이 있을까? 내일, 날이 밝아지기 무섭게 냉혹한 현실이 이 어리석은 행동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저들을 압도하며 떠오르는 이 새로운 열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설마 종들이나 들고 있는 그 수건이 새 삶으로 인도하는 것발이라도 된다는 것일까. 아닐 것 같다. 인간의 한계를 안다면, 그러나 혹시, 어쩌면 그럴 수도...

임 한설 <열정, 성공, 리더십> 중에서

차가운 담장 안에서 피운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꽃밭의 편지에 옥시 놀라운 개성 것은 어니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서 제가 글을 보고 올바른 믿음생활에 대해 깨우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에 감사의 글과 함께 개인적인 옥심이 생겨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13세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20년 동안이나 수 차례 들락거리며 살아온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는 형제들을 나약한 인간들이라고 미친 놀음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구타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야 너들이 덜 맞지"라며 괴롭히며 저였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부정하며 욕하던 제가 작년 10월 말경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지금은 6번째 통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글 읽는 속도가 느려서 오랜 시간을 보면서도 많이 읽지 못하지만, 이곳은 1인 1실로 생활하기 때문에 말씀보기에 너무나 중입니다. 하지만 달달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으면 깨달게 된다고 하시지만, 그건 안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친 '주간 찬원'을 통해 세상사를 위한 글을 보니, 크게 도움이 되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앞으로 출소할 날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조지폭력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나게 했던 죄인입니다. 감옥을 못 걷고,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두 눈은 뜨고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제가 진짜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은 더 이상 부끄러워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면 어떤 옛 생활의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 가끔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찬원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가 중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찬원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신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저도 말씀의 깨우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 가족 중에 고령찬원제남처럼 저도 성경통신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옥심이 있다면 출소하여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 다시 서신으로 연락드리며,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성경통신'과 '주간 찬원'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편지에 너무 많은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P.S.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주간찬원'은 처음 받아 봅니다. 읽을거리도 많고, 은혜가 풍만한 '주간찬원'을 여러 형제들이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은 한상욱 씨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나를 위한 묵상 생활"을 읽고 있다.
나를 향하는 길은 "성경"이다 (157-158)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중재 ♥ 이상미'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중재 형제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닐 때까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다가 서울에 올라오고 난 후 교회를 정하지 못해 자연히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 다니는 이상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매님이 남편을 따라 교회 다닐 것을 결정하고 같은 인천에 사는 이철우 형제님의 인도로 찬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미 자매는 성당과 다른 분위기에 처음엔 낯설고 부끄스러웠지만 차츰 편안해졌고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안을 갖게 되었다고 즐거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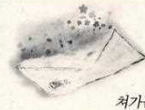
'남희정' 자매를 소개합니다



지방에 있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외숙모와 이모님을 따라 서울로 온 후부터 교회를 정하지 다녔지 못하고 늘 기도만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찬원교회가 보이는데 조카들은 교회에 보내고도 정작 본인들은 혼자 오기 쑥스러워 못 나왔습니다. 직장의 업무상 안면이 있는 전권형 집사님(배규구)의 인도로 마음 속으로 그리던 찬원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집회에 나오는 일이 기쁘답니다. "얼마나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자매님의 표정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순간을 붙잡는다.

주일 1부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두분의 집사님을 만났다. 그 중 한분은 평소에 익은 분이였다. 그러나 평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인분이 없었기에 인사도 없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의 발을 보게 되었다.

앗! 그런데 그분은 뒤통수에 아가주머만한 구멍이 난 검은색의 양말을 신고 계셨다. 검은 양말 사이로 하얗게 드러난 뒤통치를 보는 입은 아슬아슬하게 조차하였다. 게다가 구두는 낡아서 푹푹한 털이 다 빠지고 엉성한 그늘 같은 밧개의 줄이 겨우 양말의 모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구분과 당당하고도 씩씩하게 걸어갔다. 간간히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니 연세가 옥심이라고 하셨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확실히 찬 걸음걸이는 청년 같았다. 나는 그분의 뒤통수에서 그리스도로 무장한 용감의 모습을 보았다.

구멍난 양말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 순간 내 마음이 갑툼자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분은 구멍난 양말을 신은 그날 아침, 믿음 약한 딸에게 자신이 끼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 신실한 주의 사람은 "뽕꾸나" 양말로도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뒤통수에 놓는다. (정원희 기자)

구멍난 양말



아버지 주일 특집

초등부

♡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짜증
아빠,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만 부리고 막도 안듣는데 저한테 질책하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간갑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딸 지영이가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 안녕하십니까?
저 태희예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요. 아버지, 엄마 오래
오래 사랑해요. 5월 7일 주일 태희 올림

♡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진혁이에요.
그동안 동생이랑 싸워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양 싸울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김진혁 올림

♡ 안녕하십니까? 부
모님! 은선이입니다.
부모님께 이제는 부모
님을 존경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오래 사
세요! 은선이 올림

♡ 저는 예린이예요. 엄마! 다리가
많이 아프죠! 그리고 허벅지는 우리
몸도 주시려고 돈 벌러 가세요. 고
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김예린 올림

♡ 아버지, 엄마 은빈이에요. 여태
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 감사하
요. 말 듣지 않은 적이 정말 많
었는데...
제가 커서 효도로 조금이나마
갚을게요. 제가 지금은 조금 덜
렁대지만 곧잘한 사람이 되도록
꼭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
해요.

♡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하
네이석 꼭 달아드릴게요.
엄마께 우반이가.

은빈이가

유년부

♡ 어머니 이제 곧 아버지날이요,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해 드린 것
죄송해요, 아버지날에 선물도 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뚝하고 싸우지
않고 어머니 말 잘 들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2000년 5월 6일 안하은 올림

♡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지원이에요, 저의 삼형제를 키워 주셔서 감
사합니다. 저희들이 까불어서 엄마, 아빠 힘드시죠? 엄마, 아빠 힘드
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아프시면 저도 마음이 속상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지원이가 될게요,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요!

2000년 5월 7일 김지원 올림

♡ 엄마, 아빠 저는 준석이에요, 저를 사랑으로 길러 주셔서 감사하
입니다. 저를 보살피시라 힘드셨죠?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메쓰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수
님을 닮아가는 착한 준석으로 자랄게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유년부 1학년 준석 올림

♡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는 지일이예요 형아와 지원이와 저를 키우
시느라 힘드시죠?
이제 힘드시게 하지 않을게요, 또 교회에서 떠들지 않고, 교회 열
심히 다니고, 심부를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형아와 지원이
와도 장난치지 않을게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게요, 엄
마, 아빠 모두 사랑해요!

김지일 올림

소년부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정훈이에요. 13년동안 보살펴 주시
고 믿을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로는 저중과 분필도
하여 부모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지만 부추했던 저를 사랑으로 많이 위로
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나배를 기뻐 주시려고 열심히 양식하고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키
우고자 많은 노력과 기도를 잊바해 주신 것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
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사함과 부모님의 사랑은 무언
보다 소중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딸은 아들을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00년 5월 6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 정훈 올림

♡ 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지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저만 바라보고 오셨는데 그만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심심한 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지
금부터라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게요. 제가 어려웠던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
시고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 도 제가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던 부모님과 그 모습을 항상 간직하며 자랑스럽게 제가 하나
안에서 문제해결을 지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2000년 5월 6일 지영 올림

중등부

중등부 홍성환

유년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대한 사랑이 잘 안된다. 나를 위해
애쓰고 힘들게 다해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는 소홀하게 된다.
머치전 아버지날에 감사의 편지나 조그마한 선물 하나도 드리지
못했다. 중학교에서 시험때라는 핑계로 평소와 다른없이 지나갔다. 그래
도 그날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된다. 초등
학교 때보다 오히려 중학생이 되면서 착한 아들이 못되는 것 같다. 학원
에 가야 한다고, 공부하는라고 힘들다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못한다고 어
머니께 짜증만 부리게 된다. 마음으로는 안그래야지 하면서도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런 시험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서 줄지든 주무시지도 않고요 도와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야단도 많이 치
시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는 기도해주시는 것처럼 하나
나에 씌임받은 귀한 일군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
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미니의
신발은...

고등부

김지은(고등부)

어렸을 적에 학미니가 저의 집에 놀러오실 때면 항상 잘 찰
머니 신발을 저만이 아는 장소에 숨겨 놓고 했었습니다. 어떤
때문에 신발이 없으면 학미니가 다시 못 돌아가시거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미니는 저에게 부모님만큼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학미니와
의 추억엔 저 혼자만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을 만큼...
사랑하는 학미니. 저는 학미니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때 결국은 통쾌드린 것했지만, 학미니의 사랑이 너무나 크
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신발을 통쾌드린고 싶지 않습
니다. 하지만... 통쾌드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미니의 신발은 저의 마음 속 비스킷은 곳
에 언제나 숨겨져 있을테니깐요.

지체들 소식

유년부

'새친구 초청전도잔치'를 앞두고

유년부에서는 5월28일에 있을 '새친구 초청전도잔치'를 앞두고 온 교사와 어린이들이 한마음으로 전도와 행사준비에 힘쓰고 있다. 교사들은 릴레이 기도표를 작성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잇고 있으며 매주일 특별기도모임으로 꼭 찾아야 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전도대상자들을 찾아 편지교환기도와 전화화기로 예수님을 알리며 소개하고 있다. 특히, 훈련된 전도특공대원들이 매주 토요일 활동, 논현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

구역장 간증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

오 순 자 (13교구, 원종 2구역장)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식구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아직은 너무도 부족한 부끄러운 주님의 사마리아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

몇 주 전 일이었다. 주님께서는 아직 부족한 믿음의 나를 믿으셨는지 아니면 그 자매로 인해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려는 것이었는지, 내 능력으로 부족한 내 자매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매였다.

그 자매의 어머니가 하루는 부탁을 하셨다. 자매를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누가 복음 11장 14-1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붙잡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일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너나 짐으로 돌아갈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새겨지고 수리되고 있는데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시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번의 입원과 퇴원을 거치면서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 자매는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게 사마리아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마리아였기에 도움이 되고 싶어 자매 어머니를 돕기로 했다. 자매를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몇번의 시험을 겪었다. 마귀의 꼬임이었는데 자 아니면 주님의 시험이었는데 그 자매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악한 모습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무력함을 느꼈다. 대형화 목사님의 도움으로 사경을 잠시 모면했지만 기도회에 참석한 자매의 모습은 어느새 다시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바로만 돌던 귀신들린 사람들의 얘기를 실감하게 되었다.

순간순간 아찔함을 느낄 정도였다.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기도가 부족했는지 그 자매는 다시 반항을 했고 그 자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과 사탄을 수습할 수 없는 무능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족한 한이 많음을 느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말 그 불쌍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달라고 그 자매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까지 간구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 그날의 상황은 한 번의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루 속히 자매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드린다.

물매들

진실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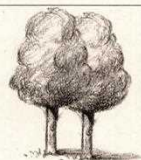
김 규 석 (정사, 6교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 또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씀하며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 가르친다.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말전하는 자 등 하나씩으로부터 귀한 은사의 직분을 받은 이들이 많다.

이런 은사나 직분도 다 좋은 것이지만, 바울은 신앙의 길 중에서 제일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사랑이 왜 중심이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 '교회사랑과 믿음은 귀중한 것이나 진정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최대의 악이 될 수 있고 가장 잔인한 일을 행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유대인의 깊은 믿을 때문이었다. 종교개혁 후 하루아침에 수만명을 죽인 것도 신앙때문이었다고 히틀러의 잘못된 신앙도 죄값은 유대인 600만을 죽게 하였다.'

어떤 일도 동기에 사랑이 없다면 신앙은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사랑을 기초로 한 올바른 동기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내는 열쇠가 된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지식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흥수 때는 곳곳에서 범람하는 물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 한다. 우리 귀에 들리는 구호는 저마다 교회사랑이요 들리는 노래마다 사랑노래며 보이는 드라마나 영화마다 사랑이야기이다. 그러나 사랑의 흥수에서도 진정한 참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진실한 사랑 곧 주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참사랑은 악을 초월할 뿐 아니라 선도 초월한다. 진실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성이요, 단념이라고 가르친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버섯을 때 자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해지고 행복해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의 부재는 인격적으로 죽은 인간이고, 죽은 교회이다. 인간이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고 사는 것은 이미 인격적으로 소멸된 것이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루아

찬양대에서는 총동원 '할루아' 찬양대 부흥회 - 순수한 영적 부흥회를 5월 20일(토) 오후 5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총동원의 의미, 영적 재부흥, 합심기도 등 일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강사는 천안위원회 지도하시는 조순찬 목사님과 지회를 맡고 계시는 조선국 집사님께서 담당하신다고 한다. 이번 부흥회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할루아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무실

영혼에 물주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없다. 운동 혹은 건전한 노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도 없다. 그렇고 좋은 생각이나 항상 어둡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강한 사람도 없다. 건강은 좋은 마음, 좋은 음식, 좋은 활동으로 세워지고 지켜진다. 그런데, 놀랄게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부당하고 핑거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마음을 품거나, 물에 해로운 음식을 거러먹거나, 혹은 건전하고 좋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자신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건강을 위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참 이리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영혼에 대한 투자에도 꼭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혼이 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때로 우리 몸이 깊은 복식호흡을 필요로 하듯이, 때로 우리의 기도 역시 깊은 차원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또한 거짓 없는 성경의 행위를 통해서 건강한 힘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모든 정성을 다해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몸으로 섬겨야 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때, 영혼은 결코 시들지 않고 사랑이 심은 나무처럼 싱그러워진다. 그런데, 놀랄게도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미적지근하다며 불평하는 자들 중 이러한 기본적인 영혼에 물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한다. (정규신 목사)

+ 양초실

1교구 총동원 성도(전주 1구역)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동안 입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교구 이귀인 성도(목양 1구역) 대장암 말기입니다. 원수로 많아서 임종을 한 달 앞두고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1교구 이종구 집사(송현 5구역) 위암 말기 1급이 재발해 온몸에 퍼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잃은 후 허반신을 못쓰십니다. 고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교구 허성은 성도(송현 5구역) 유방암으로 수술한 뒤 골미지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교구 어린이 집(매곡 4세) 아이부터 출생하는 총인원 4명 중 3명만 출생한 성도입니다. 난임 원인으로 3년 이상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말아주어 마땅히 기쁨, 이쁨이 크게 다지고 양육과 양육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처님 여려도 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기증자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족 신장수술을 받은 양한 양해를 빨리 수술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신

가정부에서는 가정세미나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두 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강연은 오늘날 사치주의에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정보화 사회와 가족관계이며 강사는 정점삼 목사님이다. 두 번째 강연의 다음 주(5월 21일)에 이어지는 강연의 제목은 '내적 치유'이다. 강의는 김병태 목사가 담당한다. 신교가운데는 속속들이 가정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결혼하여 예비부부들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비전가 기자)

